일본 근・현대문학에 나타난 조선통신사*

박 찬 기**
(e-mail: parkchan@mokpo.ac.kr)

目 次

1.들어가며
2. 근・현대의 〈조선통신사물〉과 〈도진고로시물〉
3. 근대의 〈조선 후기의 통신사물〉
3.1「사하시진고로(佐橋甚五郎)」의 출전
3.2 조선통신사가 된 일본인 교첨지
4.현대의 〈도진고로시물〉
4.1 아이지마(藍島)와 반슈 무로츠(播州室津)에서의 할복 사건
4.2 〈도진고로시〉 의 새로운 유형
5.맺음말

1.들어가며

조선통신사란 일본과의 선린우호를 목적으로 한 친선사절을 말한다. 1404년(태종 4) 조선과 일본 사이에 교린관계가 성립되자, 조선국왕과 일본 막부장군은 각기 양국의 최고 통치권자로서 외교적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이때 조선국왕이 일본 막부장군에게 파견하는 사절을 '통신사', 막부장군이 조선국왕에게 파견하는 사절을 '일본국왕사'라 칭하였다.

이후 조선국왕으로부터 일본에 육십 여회의 사절단이 파견되었지만 그 중 '통신사'란 명칭으로 파견된 것은 6회이고, 그것도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327-2010-1-A00411)
** 목포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일본근세문학

‘조선침략전쟁’(임진왜란, 정유재란)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 이것을 편의상 ‘조선 전기의 통신사’라 칭한다.

그 후 도쿠가와 장군이 즉위하자 대마도 소(宗)씨의 노력에 힘입어 1607년에 국교를 회복할 수 있었다. 그 국교 수복의 일환으로 조선통신사의 방일이 이루어진 것이고, 첫 회는 1607년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로부터 조선국왕에게 보내진 국서에 대한 답서를 지참한 ‘회답사’이기도 했고,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의 때 붙잡혀간 조선인 포로의 귀환을 목적으로 하는 ‘쇄환사’이기도 했다. 그 후 조선통신사 방일의 목적은 도쿠가와 신 장군이 즉위할 때 축하를 목적으로 하는 친선 사절로서 행하여진 것이다. 즉 정치적 목적을 띠고 방일한 것이고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알력이 숨겨져 있었다. 예를 들면, 대마도주가 조선국왕의 국서를 위조한 문제, 막부의 내시에 의해서 강행된 조선통신사 닛코(日光) 도쇼구(東照宮) 참배의 문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창건한 교토 호코지(方広寺)의 의식에 참가한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것을 ‘조선 후기의 통신사’라 칭한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있어서 조선과 일본 양국의 교류사를 생각함에 있어서 조선통신사가 담당한 역할로서 주목되는 것은 정치적인 역할은 물론이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사행의 도중 일본 문인들과의 필담・창화 및 일반민중과의 교류를 비롯한 문화적・학술적 교류의 측면에 더욱 관심이 끌린다. 그것은 12회에 달하는 조선통신사 방일의 기록에 기술되는 필담・창화의 모습[1]이나 일본의 각지에 남아있는 창화집 및 필담의 기록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다.

즉 조선 후기에 있어서 조선사절의 방일은 1607년을 시작으로 모두 12회 행하여졌으며 그 사이에는 많은 사건 및 양국의 문화, 예능, 시문 증답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여러 문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8세기 후반 1764년에 행해진 조선통신사의 방일은 양국의 교류사를 생각함에 있어서, 일본의 일반 민중의 대 조선 인식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전환기였다고 생각된다.

조선 후기 12회에 걸친 조선사절의 방일에 의해서 사건 및 다양한 교류의 상태를 엿볼 수 있는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근세기에 성립된 조선사절을 소재로 한 일본문학 작품[2]이 근・현대에는 어떻게 계승 변모해 가는가에 대한 시점으로 논을 진행하려고 한다.

또 조선통신사를 소재로 한 일본 문학 작품이 20세기 후반에 다수 나타나게 되는 데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 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www.kci.go.kr

1) 표①

2. 근・현대의 〈조선통신사물〉과 〈도진고로시물〉

횟수	연 대	정 사	부 사	종사관	사행록	제작자
1	1607년	여우길	경칠송	정호관	해사록	경칠송
2	1617년	오윤겸	박 재	이경직	동사상일록 동사일기 부상록	오추탄 박 재 이석문
3	1624년	정 립	강홍중	신계영	동사록	강홍중
4	1636년	임 광	김세렴	황 상	병자일본일기 해사록 동사록	임 광 김동명 황만량
5	1643년	윤순지	조 경	신 유	동사록 해사록	조용주 신죽당
6	1655년	조 행	유 창	남용익	부상일기 부상록	조 행 남호곡
7	1682년	윤지원	이언강	박경준	동사일기 동사록	김지남 홍우재
8	1711년	조태억	임수간	이방언	동사일기 동사록	임수간 김현문
9	1719년	홍치중	황 선	이명언	해사일기 해유록	홍북곡 신유한
10	1748년	홍계희	남태기	조명채	봉사일본시 견문록 수사일록	조난곡 홍경해
11	1764년	조 엄	이인배	김상익	해사일기 계미사행일기 일동장유가	조제곡 오대령 김인겸
12	1811년	김이교	이면구		동사록	유상필

2) 일본 근세문학작품으로 성립한 것은 1711년 조선사절의 제술관 이동곽을 괴담의 서술자로 등장시켜 괴담을 전개하는 라쿠게츠도 소시의 『가이단노리아이부네(怪談乘合船)』(1713년), 곤도 기요노부 삽화의 요미혼조루리 『조선태평기』(1713년), 1764년 조선사절의 방일에 맞춰 간행되었다고 생각되는 구로혼 『조선인행렬』(1764년) 이 있다.
이 외에도 가부키 『세와료리스즈키보초(世話料理鱸庖丁)』를 비롯하여 『간진간몬데쿠다노하지마리(韓人漢文手管始)』、『겐마와시사토노다이쓰(拳揮廓大通)』 등의 소위 〈도진고로시〉라 불리는 작품 군이 있고, 조루리로 성립된 『모로코시오리니혼데키키(唐士織日本手利)』, 실록체소설 『진세츠나니와노유메(珍説難波夢)』, 『조센진나니와노유메(朝鮮人難波夢)』 등이 있어 실로 다양한 형태의 조선통신사 관련 문예의 작품 군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수필 작품으로는 「메이와잣키(明和雑記)」, 「지지츠분펜(事実文編)」, 「세츠요기칸(摂陽奇観)」, 「가고미미슈(籠耳集)」, 「노치미쿠사(後見草)」, 「겐분즈이히츠(見聞随筆)」 등이 있어 다양한 형태의 문헌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나는 이미 한국과 일본에서 두 권의 단행본을 출간하였다.
박찬기 (2001)『조선통신사와 일본근세문학』보고사.
朴賛基(2006)『江戸時代の朝鮮通信使と日本文学』臨川書店. 참조 바람.

조선통신사를 소재로 한 일본문학 작품은 근세에서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수 성립되어 일련의 〈조선통신사물〉의 문예를 형성하고 있다. 또 이 작품군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면 크게는 조선사절의 사행, 양국 관계자의 교류 내지는 트러블, 사행 중 발생하는 사건 및 사고 등 다양한 교류의 상태를 취급한 것과 1764년 4월 7일 오사카에서 발생한 〈최천종 살해사건〉을 취급한 소위 〈도진고로시〉라 불리는 일련의 작품 군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를 〈조선통신사물〉, 후자를 〈도진고로시물〉이라 칭한다. 또 〈조선통신사물〉도 1404년 조선 초기에 시작된 조선사절의 사행이 세종에 이르러 1429년 '통신사'란 명칭으로 일본을 방일하게 되나, 그 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전쟁으로 인하여 양국의 국교가 단절될 때까지를 다룬 〈조선 전기의 통신사물〉과 히데요시 사후 일본을 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하여 재개된 양국 관계의 수복을 위한 12회의 사행을 다룬 〈조선 후기의 통신사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근·현대에 성립된 〈조선 전·후기의 통신사물〉, 〈도진고로시물〉의 작품 군에 초점을 맞춰 논을 진행하려고 한다. 단 근세기에 성립된 〈조선통신사물〉, 〈도진고로시물〉이 근・현대에 어떻게 계승・변모해 가는가에 대한 시야도 논의 진행에 포함된다.

그러면 우선 일본 근・현대에 성립된 작품을 연대순으로 나열하고 그 개요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모리 오가이(森鴎外) 「사하시진고로(佐橋甚五郎)」(1913년).[3)]

1913년 국서간행회에 의해 복각된 에도시대 외교 및 조선과의 통교에 관한 기록인 『通航一覧』에 근거한 「사하시진고로」는 에도시대 일본 막부의 봉건적 절대 권력에 저항해 조선으로 도항했던 주인공 사하시진고로가 1607년에 조선통신사의 사절이 되어 방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봉건타파의 근대적 시대상과 맞물려 그려지며 변용되고 있다.

「사하시진고로」에 등장하는 인물과 역사적 사실 등은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많은 기록물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인공인 사하시진고로가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점이 여러 기록에 시사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통신사의 사절로 묘사된 사하시진고로는 모리 오가이에 의해 창작된 인물로 전국시대 일본에 혐오감을 가진 무사들이 조선에 투항해 조선에 협력했다는 점이 근대적인 시각에서 재창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의 성격 및 출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3)森鴎外 (1913) 「佐橋甚五郎」 (『森鴎外集』Ⅱ、日本近代文学大系１２, 角川書店、1974) 所収.

www.kci.go.kr

(2) 나카노 고후(中野光風) 「도진고로시(唐人殺し)」(1984년)[4]

나카노 고후의 「도진고로시」는 최천종 살해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일본 근세기에 성립된 작품 군, 특히 실록사본 「호레키모노가타리(宝暦物語)」, 『와칸스즈키보초밋키(和漢鱸包丁密記)』의 계보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더욱이 최천종을 살해한 대마도의 통역관인 스즈키 덴조(鈴木伝蔵)의 동생 신키치(信吉)와 정인(情人)으로 다마(김옥희)라는 조선인 여성을 등장시키고 있는 등, 다양한 요소를 덧붙여 새로운 유형을 창출해 내고 있다. 이에 따라 근세문학에서는 보이지 않던 최천종 살해 사건의 요인이 당시의 포로 쇄환을 둘러싼 갈등에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애정관계가 복합적으로 가미되면서 작가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인식과 역사인식 문제에서 근세문학과는 대별되는 특징들이 표출되고 있다.

이 작품에 대해서도 다음 장에서 더욱 자세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3) 가다노 쓰구오(片野次雄) 『도쿠가와 요시무네와 조선통신사(徳川吉宗と朝鮮通信使)』 (1985년) [5]

1719년에 행해진 조선사절의 사행로, 조선의 한성에서 부산, 대마도, 아이지마(藍島), 세토내해(瀬戸内海)지역, 교토(京都), 하코네(箱根), 에도(江戸)로 이어지는 일정과 사행처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건·사고를 모노가타리(物語)풍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 조선통신사의 제술관 신유한과 안내역 대마번의 유학자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와의 교류를 중심으로, 일본문인들과의 필담·창화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4) 시노다 다츠아키(篠田達明) 『바조사이이분(馬上才異聞)』(1988년)[6]

조선 후기 제 4회째인 1636년 조선사절이 방일한다. 종마의 개량에 정열을 불태우는 대마번의 수의 이노마타 호세(猪又方正)는 조선사절의 일행 〈마상재〉의 단장 최경래와 여성단원 명진、정주 등과 함께 에도(江戸)로 향한다. 사행 중 십이 년 전에 발생한 대마번의 존망이 걸린 〈国書改竄事件〉[7]이 발각되어, 에도막부는 사건의 처리에 고심하고 있다. 사건 처리 결과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대마번 내부 (번주 소 요시나리(宗義成)와 가로 야나가와 시게오키(柳川調興))의 알력이 생생하게 그려진다.〈国書改竄事件〉의 전모를 그리고 있다는 점과 〈마상재〉를 결부시키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5) 후지사와 슈헤(藤沢周平)의 『시진(市塵)』(1991년)[8]

4) 中野光風 (1984) 「唐人殺し」(『大坂町奉行所事件控』清文堂)
5) 片野次雄 (1985) 『徳川吉宗と朝鮮通信使』誠文堂新光社.
6) 篠田達明(1988) 『馬上才異聞』新人物往来社.
7) 田代和生 (1983) 『書き換えられた国書』中公新書. 참조.
8) 藤沢周平(1991) 『市塵』上·下,講談社文庫.

www.kci.go.kr

가난한 낭인생활 끝에 유학자와 역사가로서 인정을 받게 된 주인공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가 에도의 6대 장군인 도쿠가와 이에노부(德川家宣)와 함께 막부개혁에 몰두하며 조선과의 우호 교린을 주창한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州)와 대립해 논쟁을 벌이는 모습이 조선과 일본의 정치적인 관계와 일본 막부의 유교 이념화 속에서 그려지고 있다. 특히 이 작품에서 대립구도를 형성하는 아라이 하쿠세키와 아메노모리 호슈가 조선에 대한 인식에서 대립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아라이 하쿠세키가 유교적 이념에 따라 막부의 장군을 정치적인 지배자로 격상시켜 조선의 왕과 동등한 관계를 주장하고 조선통신사에 대한 예우를 간소화 하려고 한 점에서 한·일 관계의 과거와 현재의 인식의 틀과 그 변용의 시대상을 비추어 볼 수 있다. 주인공인 아라이 하쿠세키가 조선통신사의 제술관인 성완(成琬)과의 만남에서 그 재능을 인정받고 이를 계기로 정계에 진출하게 되는 역사적 사실과 일본의 장군을 일본 왕으로 격상시켜 조선의 왕과 동등한 위치로 규정하려 한 점은 이 작품을 읽어내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6) 가토 겐지(賈島憲次)의 『아메노모리 호슈의 눈물(雨森芳州の涙)』(1997)[9]

조선통신사에 대한 예우를 간소화하고 막부와 조선 조정의 관계에 있어서 실리를 추구한 아라이 하쿠세키의 정책에 맞서 조선에 대한 성신(誠信) 외교를 주장한 아메노모리 호슈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이 작품은 부산 왜관에 파견된 주인공의 생활상이 리얼하게 그려지고 있으며,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를 위한 고뇌와 번민, 열정을 주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통신사가 수행한 문화소통의 또 다른 모습과 그 현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소재를 제공하고 있다.

(7) 아라야마 도루(荒山徹)『마간덴세쓰(魔岩伝説)』 (2002년) [10]

천하를 손에 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조선과의 국교를 재개하고 새로운 장군이 즉위할 때마다 조선사절이 방일하게 되는데 그 뒤에는 천하가 뒤집힐만한 비밀이 감춰져 있다. 때는 조선 사절이 50년 만에 방일하기 직전 대마번의 에도야시키에 수상한 자가 침입한다. 막부의 검객 야규 만베(柳生卍兵衛)의 마수로부터 젊은 도야마 가게모토(遠山景元)가 구한 것은 다름 아닌 조선의 여성닌자(忍者)였다. 그녀가 암시하는 도쿠가와 막부 200년의 태평을 발칵 뒤집어 놓은 조선과 도쿠가와 막부의 밀약이란 무엇일까? 나라의 금기를 어기고 조선으로 건너간 가게모토와 그를 쫓는 체포조의 쫓고 쫓기는 숨 막히는 추격전이

9) 賈島憲次(1997)『雨森芳州の涙)』風媒社.
10) 荒山徹(2002)『魔岩伝説』祥伝社.

www.kci.go.kr

펼쳐진다. 역사적 사실의 뒤에 감춰진 비밀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역사전기(伝奇) 소설이다.

또 조선통신사의 존속을 주장하는 야규(柳生)・하야시(林) 일파와 폐지론을 주장하는 하쿠세키(白石) 당의 암투를 중심으로 조선, 대마도, 닛코(日光)를 무대로 펼쳐지는 전기 시대 소설이다.

(8) 아시베 타쿠(芦辺拓)「고헤리키나조노후지메(五瓶力謎縅)」 (『카라쿠리도로고헤게키조(からくり灯篭五瓶劇場)』(2007년) [11]

나미키 고헤(並木五瓶)의 대표작인『고다이리키고이노후지메(五大力恋縅) 』가 성립될 때까지를 그리고 있다. 이십 수년전 고헤의 스승인 나미키 쇼조(並木正三)가 쓴 〈도진고로시〉를 소재로 한 『세와료리스즈키보초(世話料理鱸庖丁) 』의 뒤에 감춰진 수수께끼가 밝혀진다.

(9) 고니시 세이치(小西聖一)『朝鮮通信使がやってくる』 (2009년) [12]

조선통신사의 사행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의 전란과 국교회복, 에도 중기부터의 활동과 중지까지 삼부로 구성된 역사서로 알기 쉽게 기술되어 있다.

한・일간의 역사적 배경을 의식하면서 조선과의 교역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대마도의 입장이 긴박감 넘치게 그려진다. 우호와 신뢰에는 서로 거짓됨이 없는 신의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읽어낼 수 있다.

참고로 목차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13]

(10) 아라야마 도루(荒山徹) 『朝鮮通信使いま肇まる』 (2011년) [14]

우선 목차 순으로 나열하고 그 개요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朝鮮通信使いま肇まる」에서는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성립, 조선 초기 일본과의 관계와 조선사절의 방일 등이 기술되며, 조선의 세종에 이르러 1429년 조선사절의 호칭이 '통신사'로 불리게 된 경위와 세종조 첫 번째 통신사에 대한 일본의 응대가 설명된다. 이어서 박서생을 정사로 한 조선사절의 일본견문 교토방문록과 세종으로부터 부과된 밀명(종이,수차,문자,문학)에 대한 복명의 내용이 기술된다.

---

11) 芦辺拓(2007)「五瓶力謎縅」 (『からくり灯篭五瓶劇場』,原書房)

12) 小西聖一(2009)『朝鮮通信使がやってくる』理論社.

13) 復活、朝鮮通信使一街道は歓迎の人波でうまった／日本と朝鮮一積み重ねられてきた歴史（山けわしく森深い島一対馬が生きる道／倭寇の海一混乱の時代の日本と朝鮮／朝鮮通信使のルーツ一貿易のルールもつくられた／豊臣秀吉、戦国の世を統一一対馬を危機におとしいれる命令が下る）／江戸時代を通じて十二回一朝鮮通信使の旅（復活をかけて一対馬藩の涙ぐましい努力／朝鮮通信使のみのり／貿易の島対馬に活気がもどる／対馬藩危うし一にせの国書でお家騒動が）／「たがいにあざむかず、争わず」-雨森芳洲が到達した外交の極意（朝鮮語を学び朝鮮を理解する／通信使の曲がり角一芳洲は、二度の使節と行動をともにする）／朝鮮通信使を見なおそう

14) 荒山徹(2011) 『朝鮮通信使いま肇まる』文芸春秋.

www.kci.go.kr

「我が愛は海の彼方に」에서는 왜구의 침략을 금해달라는 요청을 포함하여 일본과의 교린 수호를 바라는 세종의 두 번째 조선사절(1439년)의 정사 고득종을 비롯하여 부사 윤인보, 종사관 김예몽 등의 사절단의 구성과 파견의 목적을 수행하여 아시카가 장군 접견을 마치고 귀향하는 사절단의 안도와 귀향의 기쁨이 서술된다. 그러나 왜구에 의해 납치 실종된 처 미학(美鶴,공녀(貢女)로 선발된 唱歌女 출신)과의 재회를 바라며 일본을 건넜던 김예몽의 뜻을 이루지 못하여 망연자실하는 자책의 심정이 묘사된다. 이어서 귀국선단을 기습한 왜구에 의해 지명되어 붙잡혀온 김예몽은 뜻밖에 선실에서 공녀로 선정되어 명나라로 가는 도중 왜구의 침입에 의해 납치 실종된 미학에게 사랑의 징표로 건넨 은비녀를 지참한 왜구 두목(실제는 미학)을 면회하고 미학의 실종 후일담을 듣고 비녀를 돌려받는다. 미학은 생전에 '공녀폐지'를 바라며 예몽의 방일을 기다렸다는 말을 전해 듣는다. 잠시 후 왜구의 소년이 나타나는데 그는 포로로 잡혀온 미학이 일본에서 낳은 아들로 왜구의 두목이 될 아이로 설정된다. 그의 얼굴에는 젊은 날의 김예몽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으로 예몽과 미학 사이에 태어난 소생이 밝혀진다.

「葵上」1429년 '통신사'란 명칭으로 일본을 방문한 조선 전기 통신사의 방일에서 조선 후기 1811년까지의 방일이 나열된다.

도쿠가와 장군의 다섯 로주(老中)에 의하여 의논이 제기된 조선통신사 방일 400주년 기념행사로 중단된 조선사절의 방일이 다시 논의되는 장면이 서술된다. 이어서 1443년 3회 째 방일한 사행의 모습과 신숙주의 활약이 서술된다.

「虎か鼠か」

1590년 조선사절의 부사로 방일한 김성일, 대마번주 소 요시토시(宗義智), 전영의정 유성룡,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진주 창의사 김천일 등의 피력을 통해 임진왜란의 전황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성정과 인물평이 각각 서술된다.

「日本国王豊臣秀吉」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한 조선침략 전쟁(임진왜란)의 발발과, 이순신 장군의 활약, 고니시 유키나가와 유격장군 심이경의 강화교섭의 모습이 기술된다, 특히 1596년 황신을 정사, 무관 박홍장을 부사로 한 조선사절이 방일하여 강화를 시도하지만 조선과 명, 일본의 실리와 명분의 차이로 강화교섭이 결렬되는 사태에 이르러 재차 전란의 분위기에 휩싸이게 된다. 이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나라 황제에 의한 '국왕책봉'의 사실과 사망에 이르기까지가 서술되고 7년 전쟁의 종식이 그려진다.

「仏罰、海を渡る」

1605년 조선의 탐적사 송운대사 유정, 손문욱이 방일하여 지진을 경험하고 대처하는 다양한 모습이 그려진다. 특히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유정과의 만남을

www.kci.go.kr

통하여 양국의 국교 재개에 대한 교섭의 장면이 서술되고 송운대사 유정에 의한 조선왕조의 '숭유억불 정책'에 대한 불만이 토로된다. 이어서 1607년 방일을 시작으로 전개되는 조선 후기(일본의 에도시대)의 조선통신사 방일의 경위가 서술된다.

「朝鮮通信使いよいよ畢わる」

도쿠가와 정권의 붕괴와 명치유신 이후 천황제 부활과 이에 대한 조선의 대응이 기술된다. 이어서 일본 해군 군함 '운양'의 기습적 함포사격에 대한 부산 주민의 공포와 조선의 반응,1876년 2월 체결된 〈조일수호조약〉의 경위와 내용이 기술된다. 또 김기수를 수신사, 이용숙, 김복규를 역관으로 한 80명 전후의 사절단이 편성되어 동력선을 타고 해로로 부산을 출발하여 시모노세키를 거쳐 요코하마에 도착한 후 육로로 증기기관차를 타고 동경 신바시로 진입하는 사행로와 일본 견문록이 기술된다.

「朝鮮通信使大いに笑ふ」

1375년 정사 나흥유의 사회로, 조선 후기의 통신사 정사 12명이 참석하는 좌담회가 진행되는 형태로 조선통신사행을 회고한다. 추가로 1880년 수신사 정사 김홍집이 참석자로 가담하여 좌담회가 진행된다.

위의 작품 중 〈조선 전기의 통신사물〉의 문예에 해당하는 것은 아라야마 도루(荒山徹)의 『朝鮮通信使いま肇まる』의 한 작품이고, 「사하시진고로」, 『도쿠가와 요시무네와 조선통신사』, 『바조사이이분』, 『시진』, 『아메노모리 호슈의 눈물』,『마간덴세쓰』 등의 작품은 〈조선 후기의 통신사물〉에 속하는 것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다..

또 〈도진고로시물〉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나카노 고후의 「도진고로시」, 아시베 타쿠의 「고헤리키나조노후지메」가 성립되어, 근세기에 성립된 〈도진고로시물〉의 계통을 계승하고 있다.

3. 근대의 〈조선 후기의 통신사물〉

조선 후기의 통신사를 소재로 한 근대문학작품으로는 1913년에 성립된 모리 오가이(森鴎外)의 「사하시진고로(佐橋甚五郎)」가 있다. 모리 오가이의 역사소설 「사하시진고로」는 1913년에 간행된 『중앙공론』5월호에 발표되고, 이어서 같은 해 6월에 간행된 단편집 『의지』에 수록되었다.

이 작품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조선침략과 대마도주 소 요시토시(宗義智)의 노력에 힘입어 조선통신사의 방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묘사로 시

www.kci.go.kr

작된다. 그 후 1607년 4월의 조선사절 방일의 모습과 '사하시진고로'의 인물묘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여기에서 모리 오가이는 '사하시 진고로'라는 인물 설정의 근거를 『조쿠부케간와』(続武家閑話)에 두고 있다고 자신의 일기에 기록하고 있으나,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출전과 사적에 대해 확인할 수가 없다. 또 모리 오가이는 1913년 3월의 일기에서 사하시진고로라는 인물에 대해 아는 자가 있으면 투고해 달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에도시대(1603~1867)에 간행된 서적을 망라한 『国書総目録』,『古典籍綜合目録』 등을 조사해 봐도 모리 오가이가 출전으로 제시한 「조쿠부케간와」(続武家閑話)라는 서적을 찾을 수가 없다. 단, 유사한 제명의 사료로 『조쿠부케간단』(続武家閑談)이라는 문헌이 있지만, 이것을 출전으로 인정할 근거는 없다. 이것에 대해서 오가타 츠도무(尾形)씨는 "『조쿠부케간와』(続武家閑話)의 서명은, 사하시 진고로에 관한 기사와 함께 『츠코이치란』 88권(실제는 87권)에 수록되어 있다"[15]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사하시진고로」에는 오가타씨가 지적한 『츠코이치란』87권 이외에도, 27권, 48권, 64권, 76권 등에도 영향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하시진고로(佐橋甚五郎)」와 『츠코이치란(通航一覧)』의 영향관계를 고찰하기로 한다.

3ー1. 「사하시진고로(佐橋甚五郎)」의 출전

모리 오가이 「사하시진고로」의 인물 설정에 대하여 그 줄거리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607년 4월에 여우길, 경칠송, 정호관을 사신으로 하는 조선통신사가 방일한다.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는 정이대장군의 직무를 삼남 히데타다(秀忠)에게 물려주고 슨푸(駿府, 지금의 시즈오카 시)의 성으로 낙향했다. 조선사절은 에도 방문을 마친 후 슨푸(駿府)의 성에 들러 이에야스에게 예를 표한다. 의식은 정사, 부사, 종사관의 세 사신이 먼저 예를 표하고 이어서 상상관인 역관 김첨지, 박첨지, 교첨지의 순으로 이어진다. 이 후 이에야스는 신하들에게 교첨지를 기억하고 있는 자가 없는가? 하고 묻는다. 즉 조선사절의 일원이 되어 방일한 역관 교첨지가 사실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적자 노부야스(信康)의 부하였던 사하시진고로와 동일 인물이라는 판단이다.

노부야스가 18세였을 때 자기보다 두 살 적은 사하시진고로라는 자가 있었다. 사하시진고로는 대단히 민첩하고 무예가 뛰어나 동료들의 부러움을 사는 자였다. 어느 날 노부야스는 부하를 거느리고 성을 나와 넓은 호수에 해오라기

www.kci.go.kr

15) 尾形仂「森鴎外「佐橋甚五郎」の典拠と方法」(『文学』,岩波書店, 1964. 10).

한 마리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여기에 사하시진고로와 동료 하치야(蜂谷)와의 사이에 해오라기를 쏴 잡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기를 한다. 해오라기를 쏴 맞춰 내기에 이긴 사하시진고로가 하치야에게 지니고 있던 칼을 달라고 하자, 하치야는 집안 대대로의 가보이므로 이것만은 줄 수가 없다고 거절한다. 여기에 화를 낸 사하시진고로가 무사로서 약속을 무시하는 처사는 용서할 수 없다며 하치야를 죽이고 행방을 감춘다는 것이다.

그 후 조선으로 건너간 사하시는 조선통신사의 일원이 되어 교(喬)씨로 개명하고 역관이 되어 방일하였다'[16]는 설정이다.

그렇다면 모리 오가이가 지적한 「사하시진고로」의 출전에 대한 기술의 근거는 무엇일까?

모리 오가이가 출전으로 제시한 「조쿠부케간와(続武家閑話)」의 근거와 「갓시야와(甲子夜話)」에 의한 가케이 마타죠(筧又蔵) 운운하는 기술은 모두이 『츠코이치란』의 기록에 의한 기술이었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오가타씨에 의한 지적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역사소설 「사하시진고로」에 설정된 역관 김첨지, 박첨지, 교첨지의 세 명이 실제는 1607년 사행의 기록 『해사록』,『韓使来聘記録』등에 의하면 "김효순(金孝舜), 박대근(朴大根)" 두 명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역관 교첨지(사하시진고로)의 등장은 모리 오가이에 의한 창작인 것이다. 여기에 모리 오가이는『츠코이치란』 48권 및 "1607년 조선사절이 방일한다. 혹자가 말하길 지난번 조선정벌의 때 잔류하였던 일본인, 혹은 일본의 망명자들이 조선으로 건너가 조선의 조정에서 일하다가 이번 방일의 때에 사절을 수행하여 귀국하였다"[17]는 64권의 기술에서 착상을 얻어 역관 교첨지(사하시진고로)를 첨가시켰다는 추론이 성립되는 것이다.

또한『츠코이치란』의 안장을 얹은 말과 조랑말의 두수, 조선에서 가지고온 가마의 장식, 일본에서 조달한 가마 등에 대한 기술은 「사하시진고로」의 기술과 거의 중첩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미 언급한 오가타 츠도무씨에 의한 지적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모리 오가이의 「사하시진고로」가 『츠코이치란』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되는 것이다.

3-2. 조선통신사가 된 일본인 교첨지

사하시 진고로가 실존의 인물이었던 것은 여러 문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으로 건너가 조선통신사의 일원이 되어 방일하였다는 설정은

16) 森鴎外 (1913) 「佐橋甚五郎」 (『山椒大夫·高瀬舟·阿部一族』角川文庫、1949年) 를 대상으로 하였음.
17) 林羅·宮崎成身等編 (1853) 『通航一覧』 (国書刊行会、1912~1913)

www.kci.go.kr

『츠코이치란』(通航一覽)과 이것을 이용하여 각색된 모리오가이의 「사하시진고로」 및 수필 「고로사와」(古老茶話) 등에 의한 것으로, 그 실제는 확인할 길이 없다.

단, 『츠코이치란』(48권, 64권)을 통하여 1607년 조선통신사 방일의 때에는 조선으로 귀화한 다수의 일본인이 통역관으로 동원되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즉 히데요시에 의한 조선침략전쟁(임진왜란)에 동원된 일본인 중에는 살벌한 전국시대의 일본에 혐오를 느끼고 있던 무사들이 조선에 투항하여 전란에 협조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다. 이러한 예로서 경북 달성군 우록동에는 지금도 잔류 일본인(사야카, 조선이름 김충선)[18] 후손들의 거주 촌이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사하시진고로도 이러한 한 예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리 오가이에 의해 창작되어진 조선사절 속의 일본인 사하시진고로(교첨지)의 인물상을 고찰해 보기로 하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장남 노부야스의 휘하에 있던 사하시진고로는 무예가 뛰어나며 주군을 잘 섬기는, 당시 무가사회에 잘 적응하는 중압감 있는 인물로 설정된다. 이것은 사하시진고로를 기록한 여러 사료의 "용맹하지만 의리를 모르는 자","짐승 같은 무사", "인정을 모르는 무사" 등의 기술과는 상반되는 인물묘사로 여기에 오가이의 창작의도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모리 오가이 「사하시진고로」에 나타난 조선사절 속의 일본인 사하시 진고로의 인물상과 그 성립과정의 일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으로 두 번의 병영 이탈의 경위와 그 원인이 주목된다.

「사하시진고로」에서 대의명분을 중히 여기는 무사 진고로는 자신이 속한

18) 김충선(金忠善)은 본명이 사야가(沙也可)로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좌 선봉장이 되어 3천의 병력을 이끌고 침공했으나 일본 전란의 시대에 혐오를 느끼고 있던 중 조선 문물의 뛰어남에 감화되어 경상좌우병마절도사 박진(朴晋)과 김응서(金応瑞)에게 귀화의 뜻을 밝혀 조선의 장수로 울산과 경주・영천 등지의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 특히 그는 조선에 화포(火砲)와 조총(鳥銃)을 만드는 법과 사용 술을 보급하였고, 18개 지역의 왜적의 성을 탈환하는 등 눈부신 업적을 남겼다.

박진(朴晋)이 이 사실을 나라에 알리자 그의 충정과 공훈을 가상히 여겨 선조(宣祖) 임금은 친히 그를 불러 <바다 건너온 모래(沙)를 걸러 금(金)을 얻었다>고 하며, 김씨(金氏)로 사성(賜姓)하고 정2품 관계인 자헌대부(資憲大夫)를 제수하였다.

그 후 북방을 침범한 여진족(女真族)의 토벌에 자청하여 10년 간이나 임방소(仍防所)를 지켰으며, 1624년(인조 2) 이괄(李适)의 반란 때는 모반군의 부장(副将) 서아지(徐牙之)의 목을 베는 등 평정(平定)에 공을 세웠다. 병자호란(丙子胡乱)에는 의병(義兵)을 모아 경기도 광주(広州)의 쌍령(双嶺)에서 매복작전으로 대승을 거두어 무공을 떨쳤으며, 벼슬은 정헌대부(正憲大夫)로 지중추부사(知中枢府事)에 이르렀다.(우록동 기행에 의함. 필자에 의한 약간의 수정이 있음.)

사야가 이외에도 『츠코이치란』에 의하면 조선에 투항한 일본인은 다수 있었으며, 후에 이들은 조선통신사의 통역관으로 방일하기도 하였다.

www.kci.go.kr

진영에서 두 번의 탈영을 한다. 첫 번째는 동료인 하치야(蜂谷)를 살해하고 오카자키의 병영을 이탈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묘사도 다른 사료와의 낙차를 보인다. 대의명분을 중시하고 혈기왕성한 젊은 무사 사하시진고로가 오카자키를 탈영한 것은 〈해오라기 쏴 맞히기의 내기〉에 의한 것이고, 그로 인한 살해사건이 발생한다.

사하시진고로와 내기를 한 동료 하치야는 무사이다. 내기에 이긴 진고로의 주장은 "무사의 약속은 목숨보다 중하다"는 것으로, 내기에 이겨 그 대가로 정당하게 하치야의 칼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하치야의 대답은 "가보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다"는 논리로 맞선다. 여기에 "무사로서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개 같은 녀석"으로 규정하고 하치야를 처단하는 것이고, 이것에 의하여 오카자키를 탈영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 묘사되는 것이다. 이것은 사하시진고로에 관한 사료가 욕심이 많고 이익을 위하여 수단을 가리지 않는 자로 기술한 것과는 다른 모리 오가이에 의하여 창작된 새로운 인물상의 묘사이다. 이 행위에 대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평을 오가이는 "일단 도리에 맞는 것 같이 들리지만, 아무래도 잘못된 것이다"[19]라고 묘사하고 있다. 즉 사료나 출전에는 없는, 출전과는 다른 묘사가 이루어진 것에서 모리 오가이의 창작의도 혹은 사하시진고로에 대한 새로운 인물 조형의 해석이 유추되는 것이다.

사하시 진고로의 두 번째 병영 이탈 과정과 조선으로의 망명 경위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이에야스의 배반에 있다고 판단한다. 즉 이에야스의 "저 자는 아무렇게나 내버려둬서는 믿을 수가 없다. 최근 우리 편으로 돌아선 고슈에 있는 자의 말을 들으면, 아마리는 저 자를 친자식과 같이 귀여워했다 한다. 그런데 저 무정한 놈이 아마리의 목을 베었다."[20]는 말을 숨어서 들은 진고로의 반응은 "흥하고 코방귀를 뀐 후 머리를 끄덕인" 후 이에야스의 곁을 떠나 조선으로 망명하는 것이다. 부연하면 아마리를 처치하고 돌아오면 다시 휘하에 둘 것을 허락한 이에야스의 배반은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젊은 무사 사하시진고로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병영 이탈의 원인인 하치야와의 관계에서 나타난 "무사의 약속은 목숨보다 중하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개 같은 무사 녀석"이라는 표현과도 서로 연결되는 것이고, 이러한 주장은 젊은 무사 사하시진고로의 일관된 의지였던 것이다.

여기에 무사로서의 약속을 배반한 이에야스의 절대권력에 혐오를 느낀 젊은 무사(일본인)가 조선으로 망명하여 후에 조선사절의 통역관이 되어 방일한다는 큰 틀의 줄거리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언급한 『츠코이치란』(64

19) 주 16과 같은 책.p103.
20) 주 16과 같은 책.p106.

www.kci.go.kr

권)의 “일본인 망명의 무리들이 조선으로 건너가 그 나라의 관직을 맡고, 이번 방일에 사신을 수행하여 귀국하였다”는 기술에 의한 착상일 것으로 추정되며, 그 후 전개되는 세부적인 줄거리의 묘사는 이미 확인된 오가타씨의 지적에 의한『츠코이치란』(87권)과 이미 인용한 필자의 지적에 의한 (27, 48, 64, 76권)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각색이 더해져 모리 오가이의 역사소설 「사하시진고로」(佐橋甚五郎)가 탄생되는 것이다.

4. 현대의 〈도진고로시물〉

현대의 〈도진고로시물〉에 해당하는 작품으로는 나카노 고후의 「도진고로시」(1984), 아시베 타쿠의 「고혜리키나조노후지메」(2007)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 근세문학의 현대적 수용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려 하므로 나카노 고후의 「도진고로시」를 중심으로 언급하기로 한다.

1764년 4월 7일 오사카의 객관 니시혼간지에서 발생한 최천종 살해사건과 이것을 받아들인 가부키, 조루리, 실록사본 등 일본근세문학 작품과의 관계는 한·일 양국의 교류사를 생각함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나카노 고후의 역사소설 「도진고로시」도 〈최천종 살해사건〉을 중심으로 문예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있어서는 근세기에 성립된 일련의 〈도진고로시〉 작품군의 계보를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실록사본 「호레키모노가타리」,『와칸스즈키보초밋키』로부터의 영향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 스즈키 신키치와 다마(김옥희)의 등장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를 첨가한 새로운 유형의 〈세태거리〉적 요소를 띤 작품으로 각색 ·변모되었다. 그리고 근세기에 성립된 〈도진고로시〉 작품 군에서는 볼 수 없는 다음의 요소가 주목된다.

○스즈키 신키치(鈴木信吉), 다마(김옥희) 등 스즈키 덴조(鈴木伝蔵) 주변 인물의 등장

○아이지마(藍島)와 반슈 무로츠(播州室津)에서의 할복 사건

그러면 역사소설 「도진고로시」에 묘사되는 위의 요소는 어디에 근거한 것일까? 우선 아이지마와 반슈 무로츠에서 발생한 할복 사건에 대하여 출전의 고찰을 시도하기로 하자.

4-1. 아이지마(藍島)와 반슈 무로츠(播州室津)에서의 할복 사건

조선 후기 1763년 12월 3일 통신사 일행은 이키(壱岐)에서 한 달간의 체재를 마치고 치쿠젠 아이지마(築前藍島)로 향한다. 치쿠젠 영주를 비롯한 영빙단

www.kci.go.kr

은 배를 접안시키고 봉화를 올리고 대기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강풍과 함께 파도가 밀려와 소동이 벌어졌다. 이때 거친 파도에 의해 부사선이 파손되어버렸다. 이것을 본 정사 조엄은 “누구를 위한 마중인가?”하고 심히 꾸짖는다. 그 후 부사선의 수리와 바닷물에 젖은 하물의 처리를 둘러싸고 20일 남짓 시간을 허비해버린다. 그리고 하급 무사 한 명이 할복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도진고로시」에는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 치쿠젠번 무사의 자결은 파손된 선박의 목재 조달을 둘러싼 트러블에서 발생했다. 섬에서 구할 수 없는 전나무, 회양목을 요구하고, 뒤로는 뇌물을 요구하는 까닭에 분통이 터져 발생한 것이라는 설이 있다. 게다가 대마도의 통역관 스즈키 덴조가 관련된다고 한다. 엉터리 통속소설에 지나지 않는다. 덴조는 사행이나 의전의 교섭에 입회하기는 하나 배의 재목, 기자재의 조달과는 관계없는 직책이다.
>
> 단 그는 파손된 하물 선적의 포장이나 바닷물에 젖은 화물 등의 처리에 대해서 부사 측 판사와의 협의에 입회하였다.21)

덴조를 아이지마에서는 조달할 수 없는 배의 재목을 요구하고 이것을 이유로 “뇌물을 요구하는 까닭에 분통이 터져 발생한 것이라는 설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으나, 이어서 이와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엉터리 통속소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뒤집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발상은 어디에 근거한 것일까? 「호레키모노가타리」에는 아이지마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 어쨌든 배가 파손되고 통신사는 다시 되돌아왔다. 이것을 핑계로 너희들은 뇌물을 요구하려고 난제를 제시하여 우리를 공격한다. 그러나 우리는 너희들에게 굽히지 않고 단지 나라의 무위를 알리기 위해 너희들 같은 도적을 죽이고 저승길의 길잡이로 삼으려 한다.22)

또 이것은 『와칸스즈키보초밋키』의 「壱岐国勝本着船並筑前藍島着岸附関本郷左衛門与卜船将喧嘩之事」23) 항목에도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호레키모노가타리」와의 영향 관계를 보다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21) 中野光風 (1984) 「唐人殺し」(『大坂町奉行所事件控』清文堂)p120.
22)「宝暦物語」 (未詳) (『日本庶民生活史料集成』17ま巻第二、第一書房、１９７２～８１.) p293.
23) 『和漢鱸庖丁蜜記』 (年代未詳) 、東京都立中央図書館所蔵.

반슈 무로츠에서의 할복사건의 묘사이다.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정·부·종사관에 이어서 상상관·상관도 같은 출구로 하선하였다. 이어서 차관·중관·하관은 어느 출구로 하선하는가?
>
> 도훈도의 질문이다. 선착장에 마중 나온 사카이(酒井雅楽頭, 반슈태수) 가신의 한 사람은 당황했다. 두 곳의 하선 출구 외에 하관들의 출구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 궁한 끝에
>
> 어느 쪽으로든 내리세요. 뭐라고?
>
> 세 명의 도훈도 중 한 명은 정색을 하고 부주의함을 꾸짖었다. 통신사절 일행의 승선·하선은 중요한 의례이므로 그 순서와 장소는 직급에 따라 달라야 한다는 항의이다. 그는 다시 덧붙였다.
>
> 이런 일은 이미 위로부터 통지되어 아이들에게까지 알려진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홀하게 생각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은가?
>
> 해변에 무릎 꿇은 젊은 무사는 창백해져, 수 일 후 조용히 할복했다.24)

통신사절의 하선 의식과 순서는 관직에 따라 출구를 달리해야 한다는 항의에 대해, 이것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던 사카이의 가신에게 도훈도로부터 질책이 가해지고 그것에 의해서 할복사건이 발생한다는 줄거리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호레키모노가타리」의 「信使播州着船、並深江何某口論切腹の事」에도, 대마도의 통역관 스즈키 덴조로부터 의례의 준비 부족을 지적당해 후에 할복한다는 전말이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고, 할복한 자의 이름도 명기되어 있다. 이하 그 장면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통신사선에서 하선할 때 대마도의 통역관 스즈키 덴조, 사카이가의 가신 후카에 모쿠노신(深江杢之進)이라는 자는 삼사, 상관의 하선 출구는 있지만 그 외 여러 관원의 하선 출구는 어딘가? 하고 물으니, 이 자는 갑작스런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고 어디로부터든지 하선하라 한다.
>
> 스즈키가 말하길 통신사선의 의례는 전례에 따라 전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알려진 일인데 이 지역에는 출구조차 갖추지 않았다니, 이것은 필경 관원의 분별없음이라 꾸짖자 후카에가 화를 내며 우리도 전례대로 지키고 있는 바, 분별없음이라니 무슨 말을 하는가. 너희는 통신사절의 관계자임을 내세워 권위를 부리니 이상하지 않은가. 한 번 더 떠들면 혀를 잘라버릴테니 하며 달려들 기세를 보이자 주위 사람들이 제지를 한다.(중략)

24) 주 21과 같은 책. p121.

www.kci.go.kr

그날 밤 사경 무렵 남몰래 배를 갈라 자살하였다.[25]

이와 같이 나카노 고후의 「도진고로시」에 묘사된 아이지마와 반슈 무로츠에서의 할복 사건은 「호레키모노가타리」로부터 받아들여진 취향이고 그 영향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4-2. 〈도진고로시〉 의 새로운 유형

그러면 여기에서 나카노 고후의 「도진고로시」가 최천종 살해사건을 소재로 한 〈도진고로시물〉의 하나의 새로운 유형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기위해 〈최천종 사살 사건〉의 동기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스즈키 덴조와 최천종 사이에 인삼 밀매의 대금을 둘러싼 언쟁이 일어나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후에 스즈키 덴조가 조선사절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한다. 게다가 조선사절이 지참한 인삼 밀매각의 대금 결제 방법을 두고 싸움이 일어난다. 여기에서 최천종이 많은 사람 앞에서 스즈키 덴조의 안면을 채찍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다. 참고 있던 덴조의 머릿속에는 다음의 두 가지 일이 떠올랐다.

첫째는 용서할 수 없는 천종의 처사다. 소(宗)가문의 일원인 나를 평소부터 말단 역관이라 깔보며 화가 난다고 나의 안면을 채찍으로 치다니 무슨 일인가. 아무리 사절로 방일한 빈객이지만 그 자리에서 끝장을 봤어야 했는데 하며 분한 생각이 들었다.

둘째는 대마번에 대한 항의이다. 조선 사절의 예물을 모두 매각하면서 그 대금을 미루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닌가. 공무역의 미지불분과 함께 결제하려 했다면 미리 그것을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약속을 위반하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 약간의 돈으로 무마하려는 애매한 처사로 마무리하려는 중직자들의 교활함이 견딜 수가 없다.[26]

치욕을 당한 덴조가 숙소로 돌아와 여러 대책을 생각하고 있던 중에 사랑하는 여인 다마(한국명 김옥희)의 쇄환 소식을 접한다.

대마도의 저장고, 용품 조달 상인들에게 고용된 조선 여인들은 즉시 모국으로 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중략)

어려서부터 아무리 일본인의 보살핌을 받고 자랐다하더라도 다 성장하였고

25) 주 22과 같은 책. pp296~297.
26) 주 21과 같은 책. pp136~137.

www.kci.go.kr

그녀들은 당연히 조선인이다. 우리 통신사절은 동포 쇄환의 임무를 띠고 있다[27]. 곧 출발하는 부사선에 그녀들을 승선시켜라.[28]

평소 사랑하며 여동생처럼 돌보고 있던 다마의 쇄환 소식을 접한 스즈키 덴조가 천종으로부터 받은 치욕을 씻고 다마의 쇄환을 막는 길은 천종을 살해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사살하기에 이른다는 줄거리이다.

근세기에 성립한 〈도진고로시물〉에서는 볼 수 없는 덴조의 정인 다마의 등장과 그녀의 쇄환을 둘러싼 트러블이 다른 하나의 원인이 되어 사살사건이 발생한다는 새로운 취향의 전개는 조선 후기의 통신사 방일의 목적이 '쇄환사'도 겸하고 있었다는 것에서 얻어진 착상이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 전쟁의 때 포로로 붙잡혀간 조선인의 쇄환과 일본의 생활에 정착해서 쇄환을 거부한 조선인 정주화의 예를 받아들인 창작일 것이다.

이와 같이 나카노 고후의 「도진고로시」도 근세기의 〈도진고로시물〉을 계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삼 밀매를 둘러싼 원한에 의한 살해〉의 유형[29]을 계승하고 있는 작품이고, 거기에 스즈키 덴조의 정인 다마와의 관계를 연결한 〈세태거리적〉 요소를 추가하여 새롭게 각색된 작품이다.

나카노 고후의 「도진고로시」는 최천종 살해사건을 중심으로 문예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근세기에 성립한 일련의 작품군, 특히 실록사본 「호레키모노가타리」, 『와칸스즈키보초밋키』의 계보를 계승하고 있지만, 여기에 스즈키 덴조의 동생 신키치, 정인 다마를 등장시키는 등 다양한 요소를 추가한 새로운 유형의 작품이다. 즉 근세기에 성립한 다른 〈도진고로시물〉에서는 볼 수 없는 다마의 등장과 이 여인의 쇄환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트러블이 또 하나의 원인으로 살해사건이 발생한다는 새로운 취향의 스토리 전개양상은 실제로 근세 초기에 쇄환사의 임무를 띠고 방일한 조선사절과 일본의 관계자들과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본 측의 사정[30]을 받아들인 작

27) 조선 후기 조선통신사의 주된 역할은 처음 1607년을 비롯 3회까지는 도쿠가와 장군으로부터 조선국왕 앞으로 보내진 국서에 대한 답서를 지참한 '회답사'이기도 했고,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 전쟁으로 붙잡혀간 포로의 귀환을 목적으로 하는 '쇄환사' 이기도 했다. 그 후 행해진 조선사절의 방일의 때에도 조선인 쇄환은 수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林韑·宮崎成身等編 (1853) 『通航一覧』 (国書刊行会、1912~1913) 참조.) 포로의 쇄환과 정주화에 대해서는, 仲尾宏 (2001) (『朝鮮通信使一江戸日本への善隣使節』NHK出版).에 의한 지적이 있음.

28) 주 21과 같은 책, pp137~138.

29) 나는 최천종 살해 사건을 소재로 한 〈도진고로시물〉 작품 군을 스토리 전개에 따라 1. 〈도진고로시〉 유형, 2. 〈통역관 살해〉 유형, 3. 〈혼혈아의 복수〉 유형, 4. 〈인삼 밀매를 둘러싼 원한에 의한 살해〉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朴贊基(2006)『江戸時代の朝鮮通信使と日本文学』臨川書店.)pp229~236.참조.

30) 『通航一覧』에 의하면, 어릴 때 포로로 잡혀온 여인이 성장하여 일본의 남자와 결혼하여 아이도 낳고 살고 있다는 이유로 조선으로의 쇄환을 거부한 예도 기록된다.

www.kci.go.kr

자 나카노 고후(中野光風)의 창작일 것으로 추정된다.

「호레키모노가타리」에서 나카노 고후의 「도진고로시」로 계승되는 과정을 더듬어보는 것에 의하여 실록사본에서 역사소설로 전개되어 가는 과정의 일단을 엿볼 수도 있는 것이다. 또 최천종 살해사건에서 취재한 작품이 작자의 시대적 상황에 맞는 역사인식과 출전과의 영향관계에 의하여 다양한 요소가 덧붙여져 변모해 갔다는 것이 주목된다.

5. 맺음말

조선통신사를 소재로 한 일본문학 작품은 근세에서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수 성립되어 일련의 〈조선통신사물〉의 문예를 형성하고 있다. 또 이 작품군의 줄거리를 정리해 보면 크게는 조선사절의 사행, 양국 관계자의 교류 내지는 트러블, 사행 중 발생하는 사건 및 사고 등 다양한 교류의 형태를 취재한 것과 1764년 4월 7일 오사카에서 발생한 〈최천종 살해사건〉을 취급한 소위 〈도진고로시〉라 불리는 일련의 작품 군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를 〈조선통신사물〉, 후자를 〈도진고로시물〉이라 칭한다. 또 〈조선통신사물〉도 1404년 조선 초기에 시작된 조선사절의 사행이 세종 조에 이르러 1429년 '통신사'란 명칭으로 일본을 방일하게 되나, 그 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전쟁으로 인하여 양국의 국교가 단절될 때까지를 다룬 〈조선 전기의 통신사물〉과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후 일본을 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하여 재개된 양국 관계의 수복을 위한 12회의 사행을 다룬 〈조선 후기의 통신사물〉로 나눌 수 있다.

〈조선 전기의 통신사물〉의 문예에 해당하는 일본 근·현대문학 작품으로는 아라야마 도루(荒山徹)의 『朝鮮通信使いま肇まる』가 있고, 「사하시진고로」, 『도쿠가와 요시무네와 조선통신사』, 『바조사이이분』, 『시진』, 『아메노모리 호슈의 눈물』, 『마간덴세쓰』 등 다수의 작품은 〈조선 후기의 통신사물〉에 속하는 것으로, 조선에 대한 인식과 그 재고를 통해 조선통신사 문화소통의 면면을 재생산해내고 있다.

또 〈도진고로시물〉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나카노 고후의 「도진고로시」, 아시베 타쿠의 「고헤리키나조노후지메」가 성립되어, 근세기에 성립된 〈도진고로시물〉의 계통을 계승하고 있다.

그 중 〈조선 후기의 통신사물〉에 속하는 작품으로 근대기에 성립된 모리 오가이의 「사하시진고로」와 〈도진고로시물〉에 속하는 나카노 고후의 「도

www.kci.go.kr

진고로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 전쟁과 관련된 공통의 시점을 취재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모리 오가이의 「사하시진고로」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전쟁에 동원된 일본인 중에 살벌한 전국시대의 일본에 혐오를 느끼고 있던 다수의 무사들이 조선에 투항하여 전란에 협조하고 조선으로 귀화한 후 그 중 한사람이 조선의 통역관이 되어 일본을 방문한다는 줄거리로 전개된다.

또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나카노 고후의 「도진고로시」에는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전쟁으로 붙잡혀간 조선여인의 쇄환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트러블이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작품은 시대적 상황에 따른 역사인식과 『通航一覧』을 출전으로 하여 얻어진 착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히데요시의 조선침략 전쟁에 동원되었던 무사가 조선으로 귀화하여 통신사의 통역관이 되어 일본을 방문한다는 스토리와 전쟁 포로로 붙잡혀간 조선인의 일본 정주화의 예로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대비되어 흥미롭다.

마지막으로 〈조선통신사물〉의 문예를 형성하고 있는 일본 근·현대문학 작품이 20세기 후반에 다수 성립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우선 1990년 일본을 방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조선 후기 선린 우호 관계를 주장한 아메노모리 호슈에 대한 언급이 조선통신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활발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져 왔음을 들 수 있다.

이후 조선통신사 관련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많은 자료의 번각과 출판이 이루어지고 다수의 연구 서적이 간행되기에 이른다. 또 이러한 서적의 번각 출판 및 연구서의 간행에 따른 지식의 보급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창작의 소재를 제공하게 된 것도 하나의 커다란 요인이라 추정된다.

예를 들면 『通航一覧』이 1913년에 국서간행회에 의하여 복각 출판됨에 따라, 이것에서 착상을 얻은 모리오가이의 「사하시진고로」가 창작된 것과 같이 1990년대 이후 다수의 조선통신사 관련 연구 서적이 출판됨에 따라 이것을 지식 기반으로 하는 많은 〈조선통신사물〉, 〈도진고로시물〉이 성립되기에 이르렀다는 추론이 성립되는 것은 아닐까?

이 과제에 대한 더욱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되나 본 논문에서는 지면의 제약도 있어 앞으로의 숙제로 남겨둔다.

www.kci.go.kr

【참고문헌】

박찬기(2001)『조선통신사와 일본근세문학』,보고사.
朴賛基(2006)『江戸時代の朝鮮通信使と日本文学』臨川書店.
芦辺拓(2007)「五瓶力謎縅」 (『からくり灯篭五瓶劇場』,原書房)
荒山徹(2002)『魔岩伝説』祥伝社.
荒山徹(2011) 『朝鮮通信使いま肇まる』文芸春秋.
上垣外憲一(1989)『雨森芳洲』, 中公新書.
尾形仂(1964)「森鴎外「佐橋甚五郎」の典拠と方法」(『文学』, 岩波書店,1964.10)
片野次雄 (1985) 『徳川吉宗と朝鮮通信使』誠文堂新光社.
賈島憲次(1997) 『雨森芳州の涙)』風媒社.
木村高敦(연대미상)『続武家閑談』,日本 国会図書館 所蔵.
小西聖一(2009)『朝鮮通信使がやってくる』理論社.
篠田達明(1988) 『馬上才異聞』新人物往来社.
田代和生 (1983) 『書き換えられた国書』中公新書.
仲尾宏 (2001) 『朝鮮通信使一江戸日本への善隣使節』NHK出版.
中島洋史(1972)「鴎外『佐橋甚五郎』小考-遠藤周作と比較して」(『新潟大学国文学会誌』, 1972. 7)
中野光風 (1984) 「唐人殺し」(『大坂町奉行所事件控』清文堂.)
林韙·宮崎成身等編 (1853) 『通航一覧』 (国書刊行会、1912~1913)
藤沢周平(1991) 『市塵』上·下,講談社文庫.
森鴎外(1913)「佐橋甚五郎」(『森鴎外集Ⅱ』日本近代文学大系12,角川書店, 1975)
森鴎外 (1913) 「佐橋甚五郎」 (『山椒大夫·高瀬舟·阿部一族』角川文庫、1949)
「宝暦物語」 (未詳) (『日本庶民生活史料集成』17ま巻第二、第一書房、１９７２～８１.)
『和漢鱸庖丁蜜記』 (年代未詳) 、東京都立中央図書館所蔵.

www.kci.go.kr

要 旨

朝鮮時代における通信使の訪日は数十回行われたのであり、その間には様々な事件および両国の文化・芸能・詩文贈答等の交流が行われたのであるが、それが文学作品として成立したのは近世から近現代にまでいたっており,その数も多く一連の「朝鮮通信使物」の文芸を形成している。

また、この作品群をストーリー展開から整理すると、大きくは朝鮮使節の行列、両国関係者の交流及び様々な事件を題材にしたものと、1764年4月7日大阪で発生した〈崔天宗刺殺事件〉を取扱った、所謂「唐人殺し」といわれる作品群とで分けられる。前者を〈朝鮮通信使物〉と言い、後者を〈唐人殺し物〉と称する。

さらに、〈朝鮮通信使物〉も1404年朝鮮初期に始まった朝鮮使節の訪日が世宗朝に至り、1429年〈通信使〉と称されるようになり訪問するのであるが、その後、豊臣秀吉の朝鮮侵略戦争により両国の国交が断絶するまでを扱った〈朝鮮前期の通信使物〉と豊臣秀吉死後、日本を統一した徳川家康により再開された両国関係の修復のために行われた１２回の朝鮮使節の使行を題材にした〈朝鮮後期の通信使物〉とで分けることができる。

〈朝鮮前期の通信使物〉の文芸にあたる日本近·現代文学作品としては、荒山徹 『朝鮮通信使いま肇まる』 (2011) があり、〈朝鮮後期の通信使物〉にあたる作品としては近代に刊行された森鴎外の「佐橋甚五郎」 (1913) を始め、片野次雄『徳川吉宗と朝鮮通信使』 (1985) 、篠田達明『馬上才異聞』 (1988) 、藤沢周平『市塵』 (1991) 、賈島憲次『雨森芳州の涙)』 (1997) 、荒山徹『魔岩伝説』 (2002) 等の作品が現代文学として刊行されるようになり、朝鮮に対する認識とその再考を通して朝鮮通信使の文化疎通の面々を再生産している。

また、〈唐人殺し物〉に分類される作品として、中野光風「唐人殺し」 (1984) 、芦辺拓「五瓶力謎緘」 (2007) が刊行され、近世期に成立された〈唐人殺し物〉の系譜を受継いでいる。ことに、中野光風「唐人殺し」は、近世期の「宝暦物語」、『和漢鱸庖丁蜜記』を典拠とし、その系統を受継いでいる。

キーワード：朝鮮通信使物の文芸、朝鮮前期の通信使物、朝鮮後期の通信使物、唐人殺し物、「佐橋甚五郎」、「唐人殺し」

투　　고：2013. 2. 28
1차 심사：2013. 3. 16
2차 심사：2013. 4. 6

www.kci.go.kr